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가 자신의 작업실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작품(오른쪽)과 자신의 작품을 향해 힘껏 팔을 벌리며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몸짓의 흔적 빛으로 이야기 합니다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젊은 예술인들 since 1952

(3)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빛의 움직임 화폭에 재현 이색작품 주목
광주 미술상 수상·개인전 성황 등 두각
"건축 등과 결합…끝없이 새로워 질 것"

지난 1972년 조선대 사범대학 미술학과(현 미술대 미술학과) 수업 시간에 진양욱(1932~1984년) 교수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진시황'으로 짓겠노라 큰소리쳤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만, 진 교수의 말을 들은 제자 정순이(현 광주미술협회 회장)씨 등은 "나중에 놀림당한다"며 말렸다고 한다. 강렬한 색채로 물들인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자란 그 아이는 나중에 미디어아티스트가 됐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진시영(40)씨의 작업실 입구에는 고 진양욱의 작품 '도시풍경'과 시영씨의 작품 '스쿠터 걸'이 나란히 걸려있었다.

사물의 윤곽을 굵은 선으로 표현한 뒤 다양한 색채로 마무리하는 아버지의 표현법과 아들의 미디어아트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 만큼이나 사뭇 달랐다. 아버지가 빛을 강렬한 색으로 표현했다면, 아들은 빛의 궤적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예술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면, 이 두 작품 사이의 공통점도 있었다. 바로 '빛'이다.

아버지의 화실 창문으로 쏟아져 내리던 빛을 만지작거리고 놀던 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빛의 마술'을 선사하고 있다. 시영씨는 빛을 소재로 사진, 영상, 회화를 넘나드는 이색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춤을 추는 무용수의 몸에 LED 조명을 붙여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낸 뒤 이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움직임에 빛을 매달아 춤사위의 흔적을 또렷하게 화폭에 재현하고 있다.

그가 만들어 낸 빛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자유롭고, 뒤죽박죽이지만 생명력이 넘친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빛의 궤적을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빛은 화려한 색채였다면 아들에게 빛은 찰라며 영원이다.

이런 시도는 '생각의 확장'이 얻어낸 결과다. 빛을 활용하는 미디어아트의 뿌리가 오지호 화백과 아버지 등 남도의 작가들이 천착했던 '빛'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선배 작가들이 빛의 흔적을 색으로 표현했다면 현재는 미디어아트라는 기법만 달라졌을 뿐 빛을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카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듯 말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광주시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신청 과정에서도 힘이 됐다. 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광주가 왜 미디어아트를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냈다.

성과도 컸다. 최근 김포공항 롯데몰 외벽에 110m의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무등현대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제17회 광주미술상도 받았다. 광주미술상은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뜻깊은 상이다.

그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예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미디어아트의 진시황'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전관을 빌려 초대전을 갖고, 영국과 서울에서의 개인전도 앞두고 있다. 또 춤에서 벗어나 체조와 태권도 등 스포츠 장르와 결합시킨 이색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운동 선수의 몸에 LED 조명을 부착시켜, 그들의 움직임을 빛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LED를 사람 몸에 붙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니 관련 전문가들이 '돈이 많으냐?'며 말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생각에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가 주목받는 것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LCD 모니터와 나전칠기의 결합과 건물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는 미디어 파사드 등 활동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또 카메라에 연결한 컴퓨터가 1초에 29장을 촬영할 수 있게 하던 것을 60장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전문가와 함께 개발해 작품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나전칠기는 자연의 빛을 담고 있고, LCD 모니터는 인공의 빛을 저장하고 있어요. 나전칠기로 모니터 외관을 감싸면 모니터가 꺼져있을 때는 자연의 빛을 감상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경희대 건축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다. 그는 이 학과에서 표현기법 수업을 하고 있다. 미술사의 유명 작품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이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수업이다.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의 훈수가 낫듯, 타 장르의 예술에 대한 분석은 그에게 자극을 안겨준다.

그는 평생 작업만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한다. 하나의 작업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젊은 작가'가 그의 꿈이다.

"빅뱅과 2NE1의 몸에 LED 조명을 붙여 작품을 완성해보고 싶어요(웃음). 미디어아트는 장르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뮤직비디오, 건축, 회화, 영화 등과 결합해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시영'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나의 8할은 모험심 올핸 함께할 짝 찾을 것"

▲빛의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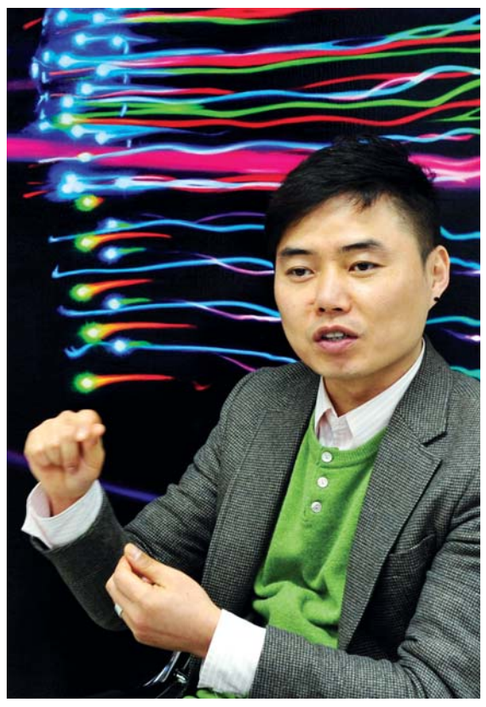
자연의 빛, 인공의 빛 그리고 인간에게 내재된 에너지(氣)의 자체발광의 빛.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 중 하나인 빛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소재이다. 단순히 "빛을 만질 수 있는, 덩어리로 만들 수 없을까?"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그 흐름과 흔적을 담아 인간과 세계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붓과 물감이 되었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난관과 외로움이 따르는 것 같다. 항상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 얻어졌던 것은 경험이었다. 남에게 작품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야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 한곳을 잔잔히 자극하는 경이로움이 작품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나 스스로 오픈 마인드로 새로운 경험을 담담히 맞이하는 것이다.

▲영원한 친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추구' 라는 말이 요즈음 머릿속에 맴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 중 하나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올해는 꼭 결혼할 반려자를 찾을 계획이다. 이것 또한 나에겐 미지의 세계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련다.



▲진시영은

-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같은 대학원 졸업 후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영상 전공
- 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 작가
- 하정웅 청년작가상, 제17회 광주미술상 수상
- 뉴욕, 타이베이, 서울, 광주 등지에서 7차례 개인전. 제6회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